

탈많은 석탄火電...“돈 된다” 너도나도

지역 반발속 전남지역 5곳 건립 추진 올부터 전력생산 민간허용 신청 붐몰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전기'가 '돈'이 되는 세상이 됐다. 덩달아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발전에 밀려 구시대 산물로 취급되던 석탄(유연탄)화력발전소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최근 석탄화력 건설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국내 유명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남에서도 여수와 해남·고흥 등 5곳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 속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돈 되는 발전소' 앞다퉈 추진=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허용돼 전력 생산 분야가 민간 기업들의 각축장이 됐다. 전력거래소에 포스코, SK건설 등 민간기업들이 국내 곳곳에 50호기(4만7000M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남 지역을 건설 예정 부지로 계획한 기업은 MPC(해남·4000MW), 포스코건설(고흥·4000MW), 애즈워드트러스터(고흥·2000MW), 한양(여수·1000MW), GS에너지(여수·2000MW) 등 5곳이다.

이처럼 민간기업이 '오염물질 종합선물 세트'로 여겨져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 해결해야 할 점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으로 생산한 전력의 발전단가는 1kW당 67.12원, 액화천연가스 생산한 전력은 142.36원이었다. 민간 발전소들이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해 액화천연가스 생산한 전력과 똑같은 가격을 받고 전력거래소에 판매한다면 2~3배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반발, 과다이익 규제 주장도=전남지역에서는 중국계 기업인 MPC코리아홀딩스가 해남 화원면 일대 250만㎡에 7조6000억원을 투자해 40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짓는 계

획이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올랐다. 해남 지역민은 현재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역환경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온갖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석탄화력발

■전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단위:MW)

후보지	업체	발전용량
해남	MPC	4000
고흥	포스코건설	4000
고흥	애즈워드트러스터	2000
여수	한양	1000
여수	GS에너지	2000

전소에 대한 불신을 모두 씻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향후 여수·고흥 등지에 발전소 건립 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사업을 구체화하면, 이 지역 곳곳에서 발전소를 둘러싼 반목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사업 초기, 민간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호주머니 가격과 전력량을 계약기간 중 일 정수준으로 고정하는 '규제금융계약'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 아시아문화주간' 개막식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앙아시아 문화장·차관, 고은 시인 등의 참가자가 북을 치며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시아문화주간 행사 개막

내달 1일까지 포럼·문화장관 회담·공연·전시

'문화 도시 광주에서 아시아의 길을 찾다.'

2012 아시아문화주간 행사가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막식과 아시아문화포럼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아시아문화주간 행사는 '아시아의 길을 주제로 오는 9월1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강은애 광주지사를 비

롯케 카흐호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문화장·차관, 국내 문화 예술계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일수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문예연 개막식에서는 타악그룹 최광관 등이 참여한 '모듬북과 미디어 아트'로 여는 아시아의 빛'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다.

또 '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을 주제로 이날 시작된 아시아문화포럼(22일까지)에서는 고은 시인과 아오

키 타모즈 일본 전 문화장관이 '이 시대 동아시아의 문화 공동체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21일에는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제1회 한국·중앙아시아 문화장관 회의가 열리며 아시아 전통 음악 및 무용아카이브 워크숍(20일), 아시아 전통음악 및 무용위원회 회의(22~23일) 등이 열린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 아시아 전통음악 및 무용 공연'(22~2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페이퍼 로드, 지적 상상의 길 전시'(26일까지 아시아문화마루), '아시아 창작 공간 세미나 전시'(27일~9월1일 아시아문화마루, 광주시립미술관) 등도 펼쳐진다. /김미은기자 mekim@

새누리 대선후보 박근혜 선출

경선 84% 득표, 사상 첫 집권여당 여성 후보...김문수 2위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되면서 18대 대선 고지를 향한 여야간의 진검승부가 본격화했다.

〈관련기사 3·4면〉

새누리당은 20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0%)에서 압도적 1위를 한 박 전 위원장을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박 후보는 국민참여 선거인단 득표수와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산한 득표수를 합산한 전체 유효투표의 84%인 8만6589표를 얻었다.

박 후보의 득표율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을 포함해 역대 대선후보 경선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기존의 최대 득표율 기록은 지난 2002년 당시 이회창 후보가 얻은 68%다.

박 후보에 이어 김문수 경기지사가 8.7%인 8955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으며 김태호 의원(3.2%·3298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2.6%·2676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1.6%·1600표)이 그 뒤를 이었다.

박 후보는 대권 재수 만에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유례 정당의 첫 여성 후보가 되면서 기존의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처음으로 '여성 대 남성'의 성(性) 대결 구도를 띠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나라로서는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대선 후보가 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박 후보는 전당대회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면서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대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불신, 그 어떤 것이라도 털어내고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꽃다발을 든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과감하게 개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박 후보는 앞으로 대권 고지를 놓고 야권 주자와 한 판 대결을 벌이게 됐다.

민주당당은 현재 문재인·손학

규·김두관·정세균·박준영 후보 5인이 대권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범야권의 가장 강력한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현재 출마를 위한 몸 풀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년도 학부 수시 1차
원서접수
8월 20일 ~ 9월 11일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IOPE 스킨리포트

농친주름을 잡아야 어려워요
주름을 놓치면 나이가 되니까
5가지 주름을 모두 관리하는 새로운 레티놀

주름은 한 번 시작되면 얼굴 전체로 퍼지는데 왜 한 가지 주름에만 신경 쓰세요?
아이오페 레티놀은 주름이 생긴 피부를 활성화시켜 얼굴 전체의 5가지 주름을 모두 관리합니다
이제 강력한 레티놀의 리얼한 효과를 얼굴 전체로 느껴보세요

5가지 주름케어로
링글케어, 리얼이 되다

- ✓ 깊은 주름
- ✓ 표정 주름
- ✓ 모공 주름
- ✓ 미세 주름
- ✓ 속 주름

레티놀에이지 코렉터
IOPE

Wrinkle Care Whitening Lifting Anti-Aging Pore Care Throat Care Sun Care Hydrating

QR Code